

주지 정념 스님(사진 맨 왼쪽)과 대중 스님들이 6월10일 월정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신 뒤 설선당에서 108 대참회문을 독송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월정사에 부는 '新바람'

다양한 기획으로 지역 활성화 노력

"보안야,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다 환(幻)과 같아서 몸의 모습은 사대(四大)에 속하고 마음의 성품은 육진(六塵)으로 돌아가나니 사대의 체(體)가 각각 여의면 무엇이 화합한 자가 되리오."

새벽 4시 30분 평창 월정사 설선당.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독송하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진다. 새벽예불을 모신 뒤 설선당으로 자리를 옮긴 주지 정념 스님과 대중스님들은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 목소리로 읽은 후 '108 대참회문'을 외며 108배를 한다. 이렇게 월정사 소임자 스님들은 매일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점검하고 있다. 월정사의 일상적인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정념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월정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월정사는 지난 5월 월정사를 출발해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제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천년의 숲길을 찾아가는 오대산 산사영화제'를 연다. 상영될 '달마야 서울가자'는 일반 극장보다 1주일 전에 선보이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거리 좁히기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노력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중

소임 스님들 새벽예불부터 모든일 함께

19·20일 영화제등 문화·복지포교 주력

국 오대산을 방문해 불교문화교류 및 수행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00년 만에 한국과 중국 문수신앙이 서로 만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문수신앙과 화엄사상을 꽃피운 상원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한국 불교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서다.

월정사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행·복지·문화' 세 가지 코트에 중심을 둔 월정사는 수행기초 확립을 위해 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념 스님이 상원사 주지로 있을 때 재개원한 청량선원을 근간으로 한다. 또 주말수련법회를 활성화하고 불교대학, 단기출가학교, 국제적인 선 수련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노후복지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방산골에 노스님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문제가 해결돼야 불교 내부의 주지인사문제, 재정 투명화, 공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천년 숲길 걷기대회와 산사영화제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수확여행을 많이 오는 봄에는 청소년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여름에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오대제'를, 단풍구경을 많이 오는 가을에는 개산대제와 함께 '불교문화축제'를 여는 등 특색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외에도 최근 열린 교구 총회에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억 3천만 원을 출연해 장학회도 출범시켰다. 또 강릉불교방송 설립을 추진기로 했으며, '월정'을 만들어 인터넷 포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지스님 뿐 아니라 대중스님들과 재가 중무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중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격의 없는 토론 과정을 통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각종 불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사찰은 대중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들의 힘으로 절차하고 탁마해야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월정사=남동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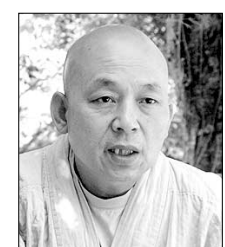
충남 아산 동심사

기도하기 편한 절



1998년 완공된 동심사 극락보전. 아래사진은 주지 향담 스님.

온라인저서로 유명한 아산 스피어스 인근에 위치한 동심사. 동심사로 오는 길은 참으로 유쾌하다. 친근한 벗처럼 다정다감한 길을 걸노라면 이만한 절 길도 없을 듯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면서 지장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아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오는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을 정도가 됐다. 스님 자신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96년부터 지장천일기도를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생긴 것은 1996년이다. 고려시대 창건됐다가 다 쓰러져가는 산신각과 요사채만 남았던 이곳에 동심사가 다시 복원되면서부터 마을은 슬랑대기 시작했다. 절이 있어서 '절 골'로 불리는 마을에 웬 스님이 절을 복원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수도와 전기조차 없었던 이곳에서 '맨

해 지난 5월 30일에는 다시 3차 기도 에 들어갔다. 동심사에서는 스님도 신도들도 모두 열심히 기도하며 불심을 닦고 있다.

동심사 신도인 원유자 보살(48·천안)과 권정희 보살(48·평택)은 "다른 절도 많이 가봤지만 동심사만큼 기도에 편안한 절도 없다"며 자랑한 곳이다. '맨

술선수범 불사로 지역민 신임 얻어

복지 수행 위한 최고 도량 목표

솔선수범 불사로 지역민 신임을 얻어 관이나 사찰 향담 스님은 복지 수행을 위한 최고 도량 목표를 계속해 길을 내고 극락보전과 요사채도 건립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던 마을 주민들도 직접 장갑을 끼고 일하는 스님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대민봉사에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스님에게 마을주민들은 감사패까지 주었을 정도로 스님과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는 두텁다.

향담 스님은 자신을 스스로 '머슴'이라고 부른다. 농사사 밭농사를 직접 해서 곡식과 채소를 거둬 지역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부장도 늘 직접복차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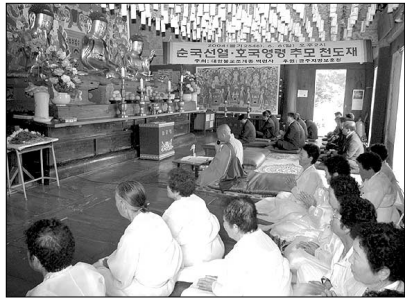
다. 동심사 관이나 사찰 향담 스님은 복지 수행을 위한 최고 도량 목표를 계속해 길을 내고 극락보전과 요사채도 건립했다. 하지만 향담 스님은 아직도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200명 규모의 요사채도 건립하고 종각도 세워 신도들에게 더 좋은 수행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그리고 절 앞의 4000여평 밭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 아산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음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꿈도 꾸고 있다.

해마다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동심사는 오늘날 최고의 기도도량을 목표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041)542-5747

아산=현명우 기자

'호국보훈의 달' 추모행사 잇달아



강진 백련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 추모법회.

강진 백련사·광주불교사암련 천도재·방생법회로 넘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법회와 천도재 및 방생대법회가 잇달아 봉행됐다.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6월 6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금년으로 4번째 열린 이날 추모재에는 전 물결의 미망인과 유족,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주지 혜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의 뜻이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번 추모재를 후원한 광주지방보훈청 이철주 청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호국영령의 터전위에 살고있다"며 "전몰군경의 치열한 구국정신을 받들어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백련사와 광주지방보훈청은 2001년 10월 재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일에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는 4일 경주 문무왕 수증능 백사장에서 '호국선열·전몰군경을 위한 천도재 및 합동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영가 천도의식, 축원, 방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광주지역 20여 사찰 1000여명의 신도가 동참했다.

방생에 앞서 광주사암연 회장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달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뜻을 기리는 호국의 달"이라며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했던 문무대왕의 숭고한 뜻이 담긴 이곳 수증능에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팔마청소년 환경백일장 박상준·이미선 학생 '대상'

전남동부 교사불자회(회장 최병주)와 대한불정 전남지구(회장 박우순)가 공동으로 개최한 '팔마청정 국토청정 팔마청소년 환경백일장' 시상식이 6월 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상준(그림, 남산중), 이미선(글짓기, 호산고)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받고 김명희(동명초등)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60여명이 분야별 상을 수상했다.

시상에 앞서 순천사암연 회장 일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듯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그림과 글에 나타나있듯 깨끗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어른들이 보호하자"고 말했다.

한편 팔마청소년 환경백일장은 지난달 22일 순천 동천 고수부지에서 순천지역 초·중·고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준엽 기자

약천사, 부처님그리기대회

제주 약천사(주지 원조)는 6월 20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주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3회 '전도 학생 부처님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약천사와 분다클럽 천지회(회장 고대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인 도지사상 2명, 최우수상인 제주시장상 서귀포시장상 북제주군상 등 각 2명씩 총 6개 부문에 걸쳐 13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는 당일까지 약천사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된다.(064)738-5000

강유신 기자

제주 남국선원 시민선방 상설

무문관으로 유명한 서귀포 남국선원에 재가자를 위한 상설 시민선방이 생겼다. 남국선원(주지 성묵)은 올 하반기 결제일인 6월 22일부터 재가자 60여 명의 방부신청을 받아 상설 시민선방을 열었다. 남국선원에서는 그동안 재가자를 대상으로 선방스님과 똑같은 일과로 안거기간에 정진하는 선방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시민선방 상설 운영은 제주도 내에 불교 있는 수행 열기를 반영한 것이다.

남국선원은 안거철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을 위해 선방을 개방하고 참선을 비롯한 불교 수행 지도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064)733-2278

강유신 기자

우예인다가 사야도 초청 위빠사나 수련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위빠사나 수행법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많으나 위빠사나 수행하는 이는 적네..."

◆ 일 시: 1차 6월 25일(금) ~ 7월 4일(일) - 9박 10일
2차 7월 8일(금) ~ 7월 18일(일) - 9박 10일

◆ 수련비: 30만원

◆ 지도스님: 우 예인다가 사야도 (미안마 스님)

◆ 준비물: 간편복장, 세면도구

◆ 계좌번호: 국민은행 277 - 25 - 0000 - 906 동인사

*** 전화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사야도 예인다가 ○ 품계: 담마 까디까 (법문 법사) ○ 캄마 타나 짜리야 (수행지도 법사)

- 1956년생
- 10세 출가 - 재방 스승을 찾아 삼장을 섭렵함.
- 33세 마하시 선원, 나옹경에 선원, 모곡선원, 아용담마 선원에서 용맹정진
- 36세 5년간 강원(비구, 사미)에서 삼장을 가르침(간타와사라 라는 칭호로)
- 41세 마하시 선원에서 '캄마라나 짜리야' 사야도로 추대됨
- 42세 따담 미란디 선원 큰 사야도의 십대 제자로 지금까지 수행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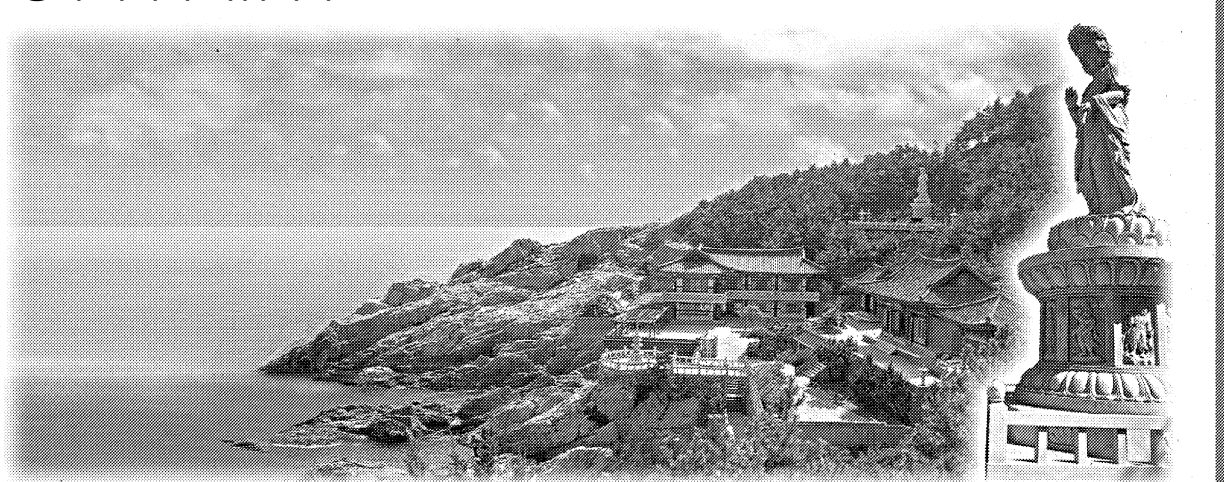
봉인사 한길정진원

연락처 : (031) 574-5585, 528 - 5585 / fax 031) 574 - 080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